

패션에 표현된 Breast 디자인의 미적 고찰

남 후 남* · 금 기 숙**

극동정보대학 패션디자인과 부교수* · 홍익대학교 섬유미술 ·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The Aesthetics on the Breast Design in Fashion

Hoo-Nam Nam* · Key-Sook Geu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Keukdong College*

Professor, Dept. of Textile Art and Fashion Design, Hongik University**

(2004. 8. 27 투고)

ABSTRACT

One of the curiosities harbored most by anthropologists may be why women are so different from men physically. One of such differences must be the breast. Female animals do not have such a swollen breast even when they nurse their young.

We can find many Western garments highlighting the breast, but in Korea the tradition has been that the breast should not be highlighted. It was because the large breast was deemed useful that Western people appreciated it highly. In general, it is conceived that to ancient Westerners' eyes, the nursing function of the breast was very mysterious, because the food supplies were insufficient. Although the size of a breast does not affect its nursing function, Westerners may have thought that it did. To the contrary, in the societies with rich agricultural products, the breast was not much emphasized as the reproductive organs.

Since people are more and more concerned about their body and the breast or one of the body parts characterizing the femininity is regarded as an important element of design, it may well be significant to research into the breast designs for development of the fashion design.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reviewing the artworks featuring women's breast and their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reupon, analyzing the aesthetic values of the breast-featuring designs by dividing them into four categories in large.

Key words: breast design(가슴디자인), exposing(노출), exaggerrating(형태부각), concealing(은폐), feminism(페미니즘), eroticism(관능미)

I. 서론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급속한 변화는 현대인의 생활 패턴을 크게 변화시켜 정신·심리적인 측면에 중요성을 두는 만큼 신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서도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문·예술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도 신체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패션에서도 신체

를 주제로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패션의 이슈는 가슴이 되었다. 현재의 이상적 신체미는 여성적인 신체 곡선미를 강조하는 관능적인 스타일이다. 따라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자연스럽게 여성의 신체부위 중 가슴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을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이 선보이고 있다. 가슴을 돌출 시켜 과장시키거나 가슴을 살짝 보이게 하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노출시키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패션사상 이렇듯 가슴을 과감히 강조하거나 드러낸 일은 없었다.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가슴부분은 패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가슴은 남녀의 성(性)차를 가장 뚜렷하게 구분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의 몸 가운데서도 가슴은 돌출된 특성 때문에 남성의 남근에 비유된다. 단지 신체의 일부분에 불과한 가슴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감추어져 왔으므로 그렇듯 황홀한 매력을 가진 여성성의 상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인체에서 가슴의 형태적 특징과 사회 문화적인 의미, 미술에 나타난 가슴의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부터 2004년까지 패션전문 잡지에 나타난 여성 패션디자인을 조사하였으며 특히 가슴이 강조되는 디자인을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그에 따른 가슴이 지니고 있는 미적인 의미와 함께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가슴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이유와 그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돌출된 유방을 본 연구에서는 가슴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여기에서 가슴디자인이란 패션디자인에서 가슴부분이 디자인의 중점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인체 및 사회학 서적과 미술서적, 논문 등의 관련 자료를 위주로 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패션전문지에 나타난 사진자료 및 내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브레스트 디자인의 디자인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내제된 미적가치를 모색하는 방법에 활용하였다.

시대에 따라 혹은 나라에 따라 가슴이 정치적, 종교적, 성애적, 심리학적, 의학적, 상업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가슴은 어머니의 가슴, 에로틱한 여성의 가슴, 페미니즘적인 당당한 가슴 등으로 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각기 부각되어 왔다. 또한 가슴에 부여되었던 여러 가지 의미들은 남성적 시각에 대한 관점이었지 거의 여성 자신에 대해 느낀 생각을 표현한 것들이 아니었다. 취

근에 이르러서야 여성들은 가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II. 이론적 배경

1. 인체와 가슴

여성의 가슴은 대부분 지방조직과 유선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유를 분비하는 유두와 유선에 분포된 성감대는 다른 동물에는 없으며 사람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데 수치심을 느껴 가리는 것이다. 인간이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성적상징 기관은 불기에서 가슴으로 옮겨졌다.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인원은 불기가 성적인 상징이어서 자연스레 뒤에서 오는 수컷을 유혹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그런데 두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성적 상징이 된 것이다.¹⁾

가슴이 패션디자인에서 그토록 주목받으며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떠오른 것은 그것이 가장 뚜렷한 여성성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된 가슴'을 가진 이유는 성적 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모리스(Morris)는 주장했다. 그리고 여성들의 가슴은 그 여성이 아직도 배란 가능성이 있음을 광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란이 여성의 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사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발달되었다고 갤럽(Gallup)은 주장하기도 했다.²⁾

그리고 인류학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은 어째서 신체 외형상 성 차가 뚜렷한 가이다. 즉 가슴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성 차의 하나인데, 다른 동물에서는 젖먹일 때 외에는 부푼 가슴을 가진 동물이 없다. 가슴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유두의 높낮이와 유방의 피하지방 조직이다. 보통 남자는 유두가 네 번째 갈비뼈 있는 곳에 위치하지만 여자는 다섯 번째 갈비뼈로 조금 낮은 데에 위치한다. 그것은 여자의 유방이 중력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슴이 너무 큰 사람은 그 무게 때문에 어깨가 아프기 까지 하다. 또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하지방도 소실되어 가슴이 더 늘어지게 된다. 우리는 젊음을 여성적인 요소로 보는 관점이 고정관념으로 되어 이에 비추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노인이 되었을 때 아주 아래로 처지게 되는 가슴을 매우 흉하게 본다.

또한 가슴의 모양은 인종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다.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양이 많이 달라진다. 체질인류학자들은 가슴을 크게 네 가지 형으로

나눈다. 납작한 접시형, 둥그런 반구형, 뾰족한 원뿔형, 늘어진 원뿔형이 그것이다. 개인에 따라 어느 형에 속하는지는 유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각 형의 출현 분포가 다르다고 연구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국여성은 반구형, 구미 인들은 원뿔형 가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소 큰 가슴이 원뿔형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서양여자의 가슴이 다소 큰 것도 그 때문이다.³⁾

2. 가슴의 사회 문화적 의미

가슴은 남녀간의 성 차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표지에 불과하지만, 그것의 의미가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또 시대에 따라 크게 부각되기도 하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며, 나라에 따라서도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나타난다. 가슴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아기들은 가슴에서 모성을 느끼고, 남성들은 에로티시즘을 느끼며, 의사들은 병을 보고, 사업가들은 경제를 본다. 이런 의미의 다양성은 인간의 상상력에서 가슴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잘 말해준다. 역사에서는 어느 순간에나 이런 가능한 의미들 가운데 하나가 전면에 부상하여 우리의 시각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서양의상에서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많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슴의 팽윤(膨隆)정도를 감추는 것이 미덕이었다. 서양에서 큰 가슴을 좋게 본 것은 아마도 유희성 때문일 것이다. 대체로 서양의 고대 원시 사회는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슴의 수

유 기능이 매우 신비하게 생각되었을 것이다. 큰 가슴이 큰 수유 기능과는 사실은 관계없지만 동일 시되었던 것이다. 그 반증으로 농산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가슴이 강조되지 않고 대신 생식기관이 강조되는 성향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⁴⁾

중세의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육체란 원죄적 욕망에 사로잡힌 것이므로 가슴도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육체적 욕망의 한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큰 가슴은 성적 성숙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더욱 더 혐오의 대상이었다. 이렇듯 기독교적 가치관이 강조된 시대에는 가슴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형태가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가슴을 조여왔던 것은 금욕적이고 절제가 미덕이었던 성리학에 영향 받은 사회 분위기 탓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와 같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는 에로티시즘적 시각으로 가슴을 지나치게 성욕의 대상으로만 부각 시켰는데 오늘날에도 남녀 모두가 가슴에 대해 노골적인 성적묘사를 떠올린다.

모성애적 측면의 가슴은 성스럽고 고귀하여 아기에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느낌을 준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자를 모성적 자비의 존재로 여겨왔다. 그래서 구한말까지만 해도 사내아이를 많이 낳은 부인은 아무 부끄럼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림 1>과 같이 가슴을 내놓고 다녔던 것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가슴을 성기의 하나로 여기므로 이러한 신성한 모성애적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림 1> 서울, 1910년, 조선일보, 2002. 6. 5. p. 28.



<그림 2>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기원전30,000~25,000년경, 톨플린 (2000), 조각에 나타난 몸, 예경, p. 22.



<그림 3> Hans Bellmer, 1938, Richard Martin (1986), Fashion and Surrealism, Thames and Hudson, p. 76.

부족사회에서는 수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가슴을 변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단지 장식적인 그림이나 유두 위 혹은 둘레에 장식품을 두르는 것 이외의 가슴변형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확대 수술을 하거나 유두를 뚫고 고리나 사슬 또는 다른 장식품을 부착하기도 한다.⁵⁾

가슴을 성적인 대상으로 포장하는 것이 40년대와 50년대의 규범이었다면, 60년대 들어서의 브래지어 화형은 여성들이 모든 외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자 하는 상징적인 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 족쇄에서 벗어난 여성의 가슴은 이제는 압박할 필요 없다는 가슴에 대한 규제 철폐를 의미하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예고하는 전조였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당당한 가슴을 드러내는 것만큼 더 이상 자유를 상징하기에 좋은 것은 없다. 따라서 브래지어를 없애는 것에서 더욱더 나아가 우연히 노출된 가슴과는 대조적으로 당당히 드러낸 가슴은 성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감정을 고취시킨다. 가슴을 당당히 드러내어 성적인 표현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대한 표현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조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신체가 주목되면서 더욱더 가슴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가슴을 위한 브래지어 같은 제품이 발전되고 있고 포르노 그래피를 포함하여 예술작품과 매스 미디어 및 오락에서 가슴의 노출을 이용하고 있다. 강박적으로 가슴에 집착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슴이 거의 무한한 상업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가슴은 브래지어와 관련 제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제품에 그려 넣어도 그 상품의 판매 역시 촉진시킨다.⁶⁾ 여성들의 가슴은 상업적인 면에서 구매자이자 동시에 판매자이기도 하다. 구매자로서 여성은 가슴을 가리고 지지하고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확대하는 수많은 제품들의 집중 소비대상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미술에 표현된 가슴

남성들이 오늘날까지 줄곧 가슴의 아름다움, 특히 그 풍만함을 여성들의 가장 인기 있는 아름다움으로서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가는 미술이 가장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19세기의 풍부한 미술사의 각 시대에 걸쳐 가슴의 특유한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 설령 중

심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확실히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다고 말하는 미술가가 많이 있다.⁷⁾

미술품의 가슴을 조사하다 보면 반구형 가슴과 원뿔형 가슴, 접시형 가슴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시대에는 원뿔형이, 어느 시대에는 접시형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미술품을 보면 처음 아르카이크 기에는 접시형이, 다음 클래식 기에는 반구형이,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기에는 원뿔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명한 말로의 비너스는 그리스말기의 미술양식으로서 이 시기의 특징인 원뿔형 가슴을 갖고 있다. 이를 나라별 시대별로 훑어보면 그 시대가 매우 융성하고 외형적으로 문화의 절정에 있을 때,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약간 퇴폐적인 그림자가 내비칠 때, 원뿔형 가슴이 다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미술사상 가장 가치 있는 양식이라고 추앙되는 고전주의 시대에 가슴은 예외 없이 반구형으로 묘사되었다. 이 반구형 가슴이 표현된 예는 서로 문화적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지역, 시대의 미술품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반구형 가슴이 가장 가슴다운 가슴, 즉 개념적 가슴의 형태로 사람의 지각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 하다.⁸⁾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작품 가운데 가장 초기 작품으로 여겨지는 인물상을 보더라도 신체는 구석기라는 선사문화권에서 조차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원천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림 2〉는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되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이 자그마한 석회암 조각은 높이 11.5cm로 2만 5천년이나 3만년쯤 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세야 농사를 짓고 산이나 들에 나가 짐승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과 몸통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이것이 당시 여성의 기준이었을 것이다. 또 자식을 많이 낳아야 생산수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편으로 임신 중에 변해가는 여체의 모습을 반영한 인간의 재현된 몸을 보여주는 초기 증거물이기도 하다.

신체공간은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양식들이 도출되는 조형적 공간이며, 패션아트는 신체와 의상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담론들이 펼쳐지는 공간⁹⁾이라고 했는데 가슴에 대해 미술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경향도 있다. 〈그림 3〉은 벨머(Bellmer)의 가슴으로 이루어진 회전하는 조각품이다. 마치 포도송이를 연상케 하며 몸에서 분리되어 있으나 그 가슴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확실하게 전해준다. 고대의

유방 승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예는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여신상인 에페수스(Ephesus)의 아르테미스이다. 몸통 둘레에 여러 개의 유방으로 여겨지는 것이 달려있으며 이조각상은 전통적으로 유방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Bellmer의 작품은 Ephesus의 아르테미스를 연상하게 한다.

Ⅲ. Fashion에 나타난 Breast 디자인의 유형

1. 노출형

가슴은 성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페미니스트들은 공공시위에서 그대로 가슴을 드러냈다.¹⁰⁾ 1960년대에는 브래지어의 착용을 거부하면서 여성에게 씌워진 사적, 공적 공간의 구분을 파괴하려 했다. 최근의 가슴을 직접 드러내는 현상은 지금까지의 가슴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개념인 남에게 보여 지지 않는 영역에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보여 지는 영역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 페미니즘 초창기인 1960년대의 브래지어 소각 시위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온 것에 대한 반동이며, 콜셋과 함께 여성을 속박해 온 올가미로서 브래지어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노브라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거부와 관계가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성의 표현이기도 하다.¹¹⁾

그러나 요즘처럼 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슴에 대한 비중도 커져 복식사상 처음으로 가슴이 노출되는 디자인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여성들의 가슴은 그것의 의미와 이용 방법에 대해 상당한 발언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던 가슴의 의미와는 다를 것이다. 여성들이 브래지어나 윗도리를 입지 않고 걸어 다니고, 대중 매체가 떠드는 매혹적인 이미지에 대항하여 보다 사실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방법을 발견하였으며, 여성의 가슴을 보호하고 정당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표현되고 있다.

〈그림 4〉는 Givenchy의 뷔스티에를 Nathalie Marchal이 스타일한 것으로 뷔스티에와 탑사이의 가슴을 그대로 노출 시켜 놓았다. 마치 가슴을 가리는 양 유두만을 색칠해 놓아 도발적인 느낌과 저항감, 관능, 유머 등을 느끼게 한다. 여성과 여성스러움에 대한 복잡한 태도에는 성적, 도덕적인 면에서 여성 신체가 갖는 논쟁적 위치가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그림 5〉와 〈그림 6〉도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격적인 디자인들이다. 그림 5는 좌우를 다르게 디자인 하여 한쪽 가슴만을 드러내어 유머와 함께 저항적인 느낌을 준다. Alexander McQueen의 작품도 가슴부분만을 드러내어 유머와 퇴폐적인 분위기를 느끼게도 하지만 여성의 당당함을 더해준다.

이와 같이 노출형에서는 과시적이거나 퇴폐적 저속함을 느낄 수도 있으나 인체의 조형미나 에로티시즘과 함께 페미니즘적인 여성의 당당함도 보인다



〈그림 4〉 Givenchy, 2002, Official, 2002.1, p. 227.



〈그림 5〉 Louis Feraud, 2001, Collezioni edge, 2001, p. 139.



〈그림 6〉 Alexander McQueen, 2002, Collezioni edge, 2002, p. 191.

2. 간접 노출형

부분적으로 가려진 신체는 때로 누드 보다 더 섹시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복의 형태는 가슴을 강조한 형태임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에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것, 비치는 블라우스 또는 유두가 가시화 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¹²⁾ 옷으로 숨겨진 가슴은 정숙성의 의미를 내포하지만 여러 겹의 의복아래에서 조차 가슴을 뚜렷이 돋보이게 함으로 해서 또한 여성적인 형태미로서 에로틱한 느낌을 준다. 옷을 벗는 것만이 노출은 아니며, 몸에 밀착되어 가슴의 윤곽을 뚜렷이 드러내는 것 역시 노출과 같은 효과를 줄 것이며, 숨기면서도 노출된 듯한, 즉 그 밑에 가슴을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옷들은 전통적으로 선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인지된다.

몸에 밀착하는 상의를 입게 되면 제2의 피부처럼 꼭 붙기 때문에 가슴 사이의 움푹 패인 곳이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으며, 투명한 소재의 상의를 입어 가슴이 비치거나 유두가 선명하게 상의 위로 표시나는 경우에는 자극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에로틱한 몸을 연상하게 하는 유혹의 특성이 있다.

<그림 7>의 Alberta Ferretti와 같이 의상 사이로 가슴이 그대로 유두까지 비치는 디자인은 완전히 가슴을 다 드러낸 것과 같은 효과를 주며, 오히려 더욱 에로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가슴이 완전히 비치는 것은 엠페이어 스타일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얇고 비치는 의복 소재를 겹옷의

소재로 사용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가슴을 감추어진 듯 드러내어 노출의 극대화로 표현되고 있다.

여성이 가슴을 드러낼 때 유두가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에 따라 에로틱한 느낌이 차이가 크게 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림 8>과 <그림 9>에서 보이는 Versace와 John Galliano의 드레스는 아슬아슬할 정도로 유두만 겨우 가리고 있어도 완전히 벗은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나며 오히려 더욱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따라서 가슴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강조하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에의 향수를 느껴 로맨틱한 에로티시즘과 인체미를 느끼게 한다.

3. 형태부각형

복식의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체형을 어떻게 형성해 내는 가이다. 이 외양은 실루엣의 결정과 신체가 미의 표준으로서 적절하게 결정될 때 만족된다. 현대패션은 신체 조형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체는 새로운 의상의 창조에 있어 제한적 요소이자 의상을 위한 도구와 같은 것이다.¹³⁾

신체는 옷을 입는 사람이 운동과 다이어트나 신체의 성형, 압박과 같은 육체적 노력을 통해 가꾸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고 생각되던 영역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성형수술을 통하여 건강하게, 날씬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젊게 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성형수술의 기술적 발달과 함께 이에



<그림 7> Alberta Ferretti, 2003, Fashion News, 2003, p. 61.



<그림 8> Versace, 2003, Mode et Mode, 2003, p. 137.



<그림 9> John Galliano, 2003, Mode et Mode, 2003, p. 40.

대한 사회적인 반응도 역시 변하고 있다. 아름다움과 젊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이나 외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몸을 변형시키는 일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¹⁴⁾ 이렇게 가슴의 볼륨감을 강조하여 풍만하게 보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슴 자체를 변형시켜 아름다운 여성의 가슴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을 통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풍만해 보일 수 있는 브래지어나 콜셋의 개발로 인해 여성들은 더욱 자신 있게 인체미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브래지어나 콜셋, 바디스 등으로 가슴을 과장시키거나 풍만하게 부각시켜 자신의 신체를 위장하여 보여주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브래지어나 콜셋과 같은 가슴을 가리는데 이용되는 도구들은 기독교적 도덕성의 금욕주의적이고 자기부정 원리를 충족시켰던 동시에 역설적으로 인체의 속박과 노출, 관능화의 관행들을 초래한다. 그러나 가슴을 가리는 이 도구들의 잠재된 섹슈얼리티로 인하여 여성의 몸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만의 특권이자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은 C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여성의 가슴이 콜셋 형태로 걸옷으로서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허리를 조이고 가슴 선을 살린 콜셋 형태를 드레스의 상의 부분에 이용하여 가슴라인을 강조하였다.

<그림 11>은 장폴골티에의 원추형태의 브래지어

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영감을 얻어 재창조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이미 원형의 회전 컵 형태로 된 브래지어가 유행했었다. 장폴골티에는 물신화된 신체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낸 디자이너다. 가슴을 강조하기 위하여 붉은 색상의 원추형 브라 형태를 돌출 시켜 도발적으로 보이게 하였다. <그림 12>도 장폴골티에의 작품으로 풍만하고 언발란스한 가슴을 유두까지 표현한 모형으로 만들어 착용함으로써 얼마든지 가슴은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 같다. 여성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 듯 한 효과와 함께 의상과 몸이 일체 되어 보이는 마치 의상을 입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는 미래적이며 조형적인 디자인이다. 따라서 몸에 대한 인간의 영원한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대안으로 조형적인 의상으로 볼 수 있겠다.

형태부각형에서는 견고한 소재를 이용하여 과장시켜 인위적으로 왜곡하거나 가슴의 크기를 커보이게 하기 위해 허리를 강하게 조이는 페티시 등도 보이지만 에로티시즘을 통한 인체의 조형미를 느끼게 해준다.

4. 은폐형

1920년대에는 다리가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이때의 의상들은 허리도 가슴도 없이 만들어졌다. 이 시



<그림 10> Cristian Lacroix, 1996, *Moda in*, 1996, p. 199.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1984, Richard Martin (1986), *Fashion and Surrealism*, Thames and Hudson, p. 69.



<그림 12> Jean Paul Gaultier, 1999, *Moda in*, 1999 N. 110, p. 172.

대와 같이 풍성한 가슴이 미의 기준이 되지 못했던 때에는 모든 방법을 써서 풍성한 가슴에 눈이 가지 않게 했다.¹⁵⁾

또한 브래지어의 디자인은 몸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변함에 따라 다양해져서 1920년대에는 가슴을 납작하게 하고, 1930년대와 1950년대는 신체 외곽선을 강조하고 1960년대는 가슴이 가장 작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하고, 70년대와 80년대에는 가슴을 완전히 감싸고, 1990년대는 가슴의 특징을 살리는 형태였다. 그러던 것이 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슴에 대한 비중도 커져 유방확대, 갈비뼈 제거하기, 주름제거, 지방제거 등 오늘날의 성형 수술의 기술은 이상적인 몸으로의 완전한 변형을 약속하고 있는 듯하다. 몸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자 가슴이 점점 더욱 강조되어 가슴을 가꾸고 변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미술가인 낸시 스페로는 여체의 이미지를 중심인물, 풍자적 모방을 통해 여성에 관한 다양한 진실, 즉 신체적, 정신적 강인함, 가부장제하에서 그들이 받는 억압들을 발굴하려 하였다.¹⁶⁾ 이처럼 여성들의 옷차림에서도 가슴이 나온 것을 수치로 여겨 가슴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하거나 1920년대 혹은 1960년대 풍의 재현으로 소녀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또한 가슴을 납작하게 눌러 여성미를 감추고 중성적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성의 억압받는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13>은 Claud Montana의 작품으로 소녀와 같은 작은 가슴은 관능적인 여성미와는 거리가 있

어 보이는 청순함과 순수함을 느끼게 한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Alexander McQueen과 Boudicca의 작품으로 가슴을 압박하여 납작하게 눌러버림으로써 애초부터 마치 볼록한 가슴이 없는 듯 여성성을 못 느끼게 하는 중성적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가슴을 자연스럽게 가려 청순함을 느끼게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납작하게 왜곡시켜 중성미와 함께 풍자적인 페미니즘을 느끼게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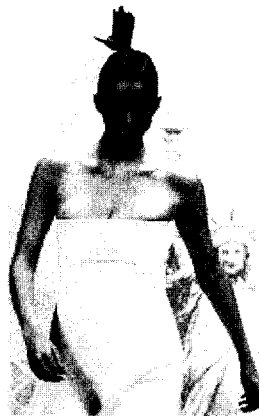
Breast 디자인의 유형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표 1> Breast 디자인의 유형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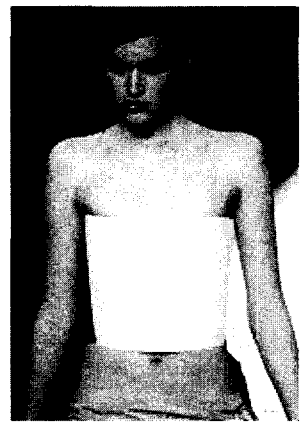
Breast 디자인의 유형	미적 특성	미적가치
노출형	직접노출, 저항, 인간중심, 비정숙, 과시적, 퇴폐, 저속	페미니즘, 에로티시즘, 조형미, 나르시즘
간접 노출형	부분노출, 투명소재, 연상적, 은유, 유혹	에로티시즘, 조형미, 로맨티시즘, 페티시
형태 부각형	형태 강조, 왜곡, 견고한 소재, 타이트 레이스, 인공적	에로티시즘, 조형미, 인체미, 매조키즘, 페티시
은폐형	형태의 은폐, 가슴 압박, 저항, 왜곡, 풍자, 청순, 정숙	중성미, 페미니즘, 새디즘



<그림 13> Claud Montana, 1999, Moda in, 1999 N. 113, p. 64.



<그림 14> Alexander McQueen, 1999, Moda in, 1999 N. 113, p. 27.



<그림 15> Boudicca, 2001, Collezioni edge, 2001, p. 45.

IV. Breast 디자인의 미적가치

1. 페미니즘

페미니즘 미술과 이론의 관심은 여성의 성의 탐구에 있다. 페미니즘 미술가들은 여성적 성에 관한 새로운 표현들을 이끌어 내려고 시도하였으며, 그들이 보았던 과거 여성들의 수동적이고 이상화된 이미지들은 남성적 관점에서 재현된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¹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체를 이용하여 사회에 저항하거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들을 강조하기 위한 특징들을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범주에 포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실에 대한 불안과 회의는 좀 더 자극적인 패션을 추구하게 되고 성을 상품화하여 신체노출이 확대되고 기존문화에 대한 반동은 착장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 벌거벗은 남자는 영웅주의, 신성, 운동지상주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여자에게 있어서는 수치스럽고 비도덕적인 것이었다. 여성과 여성스러움에 대한 복잡한 태도에는 성적, 도덕적인 면에서 여성 신체가 갖는 논쟁적 위치가 지속적으로 반영된다. 우리에게 있어 신체 부위의 노출은 도덕적 금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위험하다는 경종을 울려 오직 특수한 상황에서만 신체노출이 허용된다. 게다가 신체를 보이는 것은 억제되지 않은 성적 표현이라는 함의를 띠고 있다.

역사상 남성과 여성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은 어느 시대에나 만들어졌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기를 노출시킨 채 공중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남성이나 여성에게나 마찬가지지만, 가슴을 보일 수 없는 것은 여성뿐이다. 우리가 가슴을 가려야한다는 강제적인 원칙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젖을 먹이는 것과 공중목욕탕과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가슴을 가리는 것이 예의라는 것이 일반적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애매한 개념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스트리킹(streaking)¹⁸⁾, 플래싱(fashing)¹⁹⁾, 무닝(mooning)²⁰⁾과 함께 여성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를 조롱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여성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슴을 드러내어 항의를 하면서 여성들의 권위와 같은 이념들을 표현하기도 한다. 여성들이 가슴을 일종의 무기로 생각하는 것이며, 유연히 노출된 가슴과는 대조적으로 당당히 드러내

가슴은 성적인 감정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감정을 고취시킨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당당한 가슴을 드러내는 것만큼 더 이상 자유를 상징하기에 좋은 것은 없다. 이제 여성들은 가슴의 아름다움을 감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혹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당히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숨겨져 왔으므로 여성의 신체 중 가장 에로틱하게 느껴졌던 가슴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며, 이렇게 가슴을 완전히 노출시켜 표현하게 되면 오히려 에로틱한 느낌은 줄어들게 된다. 가슴을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그것을 보는 것에 익숙하게 될 것이고, 가슴이 성 기관이 아닌 그저 남자와는 다른 매력적인 한 부분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2. 관능미

관능미의 미적특징으로 유추되는 개념에는 에로티시즘, 페티쉬, 메조키즘, 새디즘 등과 같은 개념들을 강조하기 위한 특징들이 보인다. 이들은 모두 에로틱하고 성적인 관심이 고조된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관능미라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현재의 이상적 신체미는 여성적인 신체 곡선미를 강조하는 관능적인 스타일이다. 르네상스시대 이래 여성의 가슴을 지나치게 성욕의 대상으로만 부각시키면서 신성한 어머니의 가슴은 성적인 의미에 가려 희미해졌다. 남성과 여성을 특징짓는 가장 큰 요소가 가슴이고 관능적으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 속에는 수동적인 노출증의 경향이 숨겨져 있어서 복식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출된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의 복식은 남성의 복식보다 정숙하면서도 동시에 노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며, 여성은 성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므로 복식에 성적인 과시를 부여하여 에로틱하게 보이려 한다고 한다.²¹⁾

관능적인 몸매를 위해 여성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식욕을 거부해야 하며 비위협적인 유순한 몸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²²⁾ 숨기지만 하던 빈약한 가슴은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 있게 드러내게 되었고 브라지어 등 가슴이 확대되어 보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능적인 스타일이 더욱 주류를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완전히 가슴을 드러낼 때보다도 유두만이라도 가린 상태에서 풍만한 가슴을 강조한다든지 가슴의 윤곽을 돋보이도록 하는 것이 더욱 에로틱

한 느낌을 준다. 서구 패션의 역사는 의복과 장신구를 통한 인체의 노출과 은폐 사이의 유희였다고도 볼 수 있는데 가슴을 살짝 가리거나 비치게 함으로써 직접 드러내는 것보다도 개인의 은밀함과 충만감을 유지시켜 더욱 더 가슴에 대한 연상 작용을 불러 일으켜 에로티시즘을 느끼게 한다. 중세 후기 패션의 특징적인 요소로 등장한 이후 목선을 길게 파서 여성의 가슴을 살짝 가리는 듯 드러내는 디자인이 여성미를 대표해 왔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려진 신체는 종종 더 심한 경경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스틸(Steel)의²³⁾ 연구에서는 왜 부분적으로 가려진 신체가 때로 누드 보다 더 섹시하게 받아들여지는 가라고 했다.

특히 여성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신체 부위인 여성의 가슴은 가려져 보이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정숙성 개념과 연관되지만 실제로 가려진 부위를 강조함으로써 시선을 집중시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상상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성에 있어서 속옷의 많은 부분이 특히 가슴을 가리는 브래지어나 콜셋을 걸옷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하면 가슴이 자연히 강조되고 속옷에 부여된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에로틱한 연상 때문에 매우 선정적인 느낌을 주며 이것은 마치 옷을 입지 않은 행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3. 조형미

여성 인체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가슴을 노출시키거나 콜셋, 바디스로 왜곡하여 강조하는 미적특성은 조형적인 인체미가 특징이므로 이를 조형미라고 하는 미적가치로 분류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존재의 불확실성 속에 실존의 확실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체에 몰두하게 된다. 더구나 신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면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피조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는 신체 제조에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여성의 가슴은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에 의해 상업화의 대상으로 이용되면서 패션디자이너들도 여성의 신체부위 중 가슴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다.²⁴⁾ 신체는 자연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천이 아니라 자기를 변형시키려는 개인의 욕망에 따라 변형되고 있다.²⁵⁾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가는 언제나 사회의 가치 및 문화적 규범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현대의 여성이나 남성은 크고 단단

하며 우뚝 솟아오른 표준화된 가슴만을 다루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이미지에 직면하여 많은 여성들은 브래지어를 활용하거나 운동 등으로 가슴을 크게 보이려 하며 심지어는 유방확대 수술을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신체는 광범위한 권력과 정치적 파생물의 역할을 하여 당대의 사회적 행동을 전달하는데 19세기부터 속옷에 나타난 새로운 스타일들은 바람직한 여성체형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일치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성체형에 대한 개념은 과거에 숭배되었던 살찐 몸매를 기피하며, 점점 날씬한 몸매와 여성적인 부위인 가슴, 엉덩이, 허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신체는 옷을 입는 사람이 운동과 다 이어트나 신체의 성형, 압박과 같은 육체적 노력을 통해 가꾸어야 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 최종 산물로서의 바람직한 형태는 속옷과 걸옷의 개념이 아닌 여성적 체형의 성과물인 조형적인 바디스(bodice)에 의해 더욱 강조된다.

조형적 형태의 바디스는 신체와 그 안에 숨겨진 욕망을 위장하기보다, 신체의 일부 특히 가슴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가려주기도 하고 이상적인 체형을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체와 숨겨진 욕망을 가장하기보다는 인체의 가슴과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하여 신체의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섹슈얼리티를 부여할 뿐 아니라 걸옷과 속옷으로 이루어진 영역의 붕괴를 마련하기도 한다.

의의로서 입혀진 바디스는 은폐 대 노출의 형식적인 디자인 특성을 이용한 에로틱한 성적매력의 예이다.²⁶⁾ 바디스에 의한 표현은 신체의 노출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성적 상징의 노출을 통한 조형미 표현의 발산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상은 또한 여러 조형 요소로 구성되는 창조의 형태이며 성적 본능이 잠재되어 있어 인간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입체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다.

4. 중성미

청순미, 가슴 압박에 의한 새디즘 등과 같은 개념들은 모두 가슴을 은폐시키려는 특징들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여성성이 약하게 표현되는 것을 중성미라는 범주로 포함시켰다.

고대 크레타 문명권에서는 가슴을 콜셋으로 꼭 조여 올려주면서 노출시킨 반면,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가죽 끈으로 가슴을 묶어서 납작하게 만들었다. 15세기 당시 여성들의 의상은 옷 속의 신체형태를 무시하

는 스타일이었으며, 단단한 린넨의 언더바디스를 착용했다. 16세기에 와서 이 의상은 고래뼈나 나무로 만들어져 더욱 단단하게 되었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가슴까지 오는 첼로 만든 금속 콜셋을 입었다.

그 이후의 콜셋은 허리선을 압박하여 가슴은 풍만하게 하는 것이 콜셋을 입는 목적이었고 이것이 여성성을 대표하는 차림이었다. 가슴을 누르는 형태는 아니었으나 많은 폐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애용되어 왔다. 역사상 수차례의 콜셋으로부터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스스로 콜셋을 찾는 모순을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허리만 압박하여 가슴을 풍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압박하여 마치 돌출된 가슴이 없는 것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소녀 같은 이미지로 표현되는 디자인들은 중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남성다움에 특권을 주는 세상에서 사내아이같이 보일 필요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기위해 심한 다이어트도 하게 되는데 많은 식욕 부진 환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슴과 엉덩이에 살이 붙으면 남자아이들이나 남성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거나 상처받기 쉽게 보일까봐 두려워한다고 한다. 돌출된 가슴을 거부하는 것은 성애와 모성에 대한 거부일 뿐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온갖 사회적, 경제적, 지적인 열등에 대한 거부이기도 한 것이다.²⁷⁾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보는가? 여성운동에서 여성의 육체는 중요한 주제였다.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미라는 개념과 여성육체의 성적대상화를 비판하였다. 여성들은 보란 듯이 외모를 꾸미지 않음으로써 남성들과 동등한 선에서려고 했다. 존중받기 위해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²⁸⁾

여성성은 여성의 신체가 지각되고 표현되는 방식에서 정의되므로, 한 여성의 특성과 지위는 종종 그녀의 외모에 의해 판단된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남성과 대등하게 보이려 열등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선택 방법으로 여성의 특징인 가슴을 돌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신체는 여성에 대한 문화적 이상형이 충실하게 표현되는 공간이며 회화, 광고, 포르노그라피 그리고 패션은 모두 여성 신체를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들이 되었다. 남성들은 관찰하는 대상이 되었고, 여성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수동적으로 보여질 원하는 쪽으로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여성들은 가슴의 돌출을 감추어

여성적 성향을 중성미로 표현하는 것이다.

V. 결론

패션디자인에서 가슴을 강조하는 방법은 가슴과 유두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드러내거나, 가슴을 암시적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인공적인 방법으로 과장시키거나, 가슴을 압박하여 눌러서 중성형으로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이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노출형으로서 유두를 포함한 가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에로티시즘 보다는 사회에 대한 저항적 측면에서 메시지의 전달로 볼 수 있다. 가슴을 노출시키는 것은 유방을 성 기관이 아닌 그저 남자와는 다른 매력적인 부분으로 여겨지는 것 때문으로 보이며, 그 동안 숨겨져 왔으므로 여성의 신체 중 가장 에로틱하게 느껴졌던 가슴이 계속 노출된다면 성적매력은 감소하리라고 여겨진다.

둘째, 간접노출로서 옷을 밀착시켜 입음으로써 유두가 드러나거나 얇은 옷을 걸쳐 가슴이 그대로 비치는 것. 앞가슴을 깊게 파서 거의 보일 듯 한 디자인들을 여기에 포함시켰다. 옷을 입기는 했으나 위장시키지 않은 입은 듯 간접적으로 노출시켜 보이는 것으로 직접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 여성의 상징인 가슴을 연상시킴으로 해서 완전히 가슴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더욱 선정적으로 보인다.

셋째, 가슴형태 부각형으로 가슴의 곡선을 인위적으로 강조하거나 과장시키는 것으로 브래지어나 콜셋, 몰딩 등으로 가슴의 곡선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을 겉옷의 형태로 착용하여 가슴을 가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욱 과장하게 되어 풍만하게 부각된다. 이렇게 가슴을 과장하게 되므로 조형적이며, 관능적으로 보이게 된다.

넷째는 은폐형으로 가슴을 인위적으로 부풀리지 않고 소녀와 같은 느낌으로 작은 가슴으로 표현하거나 납작하게 누르는 것이다. 이것은 청순함을 느끼게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납작하게 왜곡시켜 여성성 보다는 중성미가 강하며 여성의 억압받는 현실과 같이 풍자적인 페미니즘을 느끼게도 한다.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에 따른 미적 가치를 알아본 연구 결과 크게 페미니즘, 관능미, 조형미, 중성미가 나타났다. 페미니즘은 여성이 가슴을 당당히 드러내거나 완전히 은폐시켜 납작하게 보이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보았다. 이것은 가슴을 하나의 표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능미는 가슴을 노출시키거나 강조하는 형태 등 여러 유형에서 보이는 것으로 가슴의 이미지가 이미 여성성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조형미는 여성의 가슴을 강조하거나 과장시켜 표현할 때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조형적인 여성의 인체미가 극대화된다. 중성미는 풍성한 가슴보다는 멋있게 표현하여 또 다른 중성적인 아름다움을 주며 여성의 성정을 감추어 남성과 동등하게 보이려는 몸짓으로 볼 수 있다.

의상이 몸에 밀착되자 남녀 성 차를 뚜렷이 구분해 주는 가슴이 패션디자인에서 화두로 된 것이며, 이렇게 가슴이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된다는 것은 사회의 성 개방과 퇴폐적 분위기도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도 한몫을 하여 숨기기만 하던 빈약한 가슴을 성형수술을 통해 자신 있게 드러내게 되자 더욱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패션디자인에서 몸에 관련된 연구는 꽤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가슴과 같이 신체의 특정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요즘 인체구조의 미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몸 그 중 특히 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가슴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확한 인식을 갖는다면 향후 디자인 전개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실물을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한 점이 본 논문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패션디자인 중 가슴만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전체디자인의 연계성에 대한 시각이 미흡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가슴에 관한 연구만으로도 패션디자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슴뿐만이 아니라 여성성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인체의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문국진 (2004). 법의학자의 눈으로 본 그림 속 나체. 서울:예담, p. 155.
- 2) Chris Shilling. 임인숙 역 (1993). 몸의 사회학. 서울: 나남출판, p. 83.
- 3) 조용진 (2001). 우리 몸과 미술. 서울: 사계절, p.151.
- 4) 위의 책, p. 151.
- 5) Thomas F. Cash, Thomas Pruzinsky. 임숙자 외 역

- (2000). 바디이미지. 서울: 교문사, p. 84.
- 6) Marilyn Yalom. 윤길순 역 (1999). 유방의 역사. 서울: 자작나무, p. 407.
- 7) Eduard Fuchs. 이기용, 박종만 역 (1991). 풍속의 역사Ⅳ. 서울: 까치, p. 37.
- 8) 조용진. 앞의 책, p. 161.
- 9) 허정선 (2004). 패션아트의 신체공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8.
- 10) Clyde Fransworth. (1992. 9. 6). *Shirts on, shirts off: Canadian feminists protest an indencency law*. New York Times, p. 3.
- 11) 이의정, 양숙희 (1998). 페티시즘. 서울: 경춘사, p. 178.
- 12) Jennifer Craik. 정인희 외 역 (2002). 패션의 얼굴. 서울: 푸른솔, p. 327.
- 13) Richard Martin and Harold Koda (1993). *Infra- apparel*. New York :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s. p. 48.
- 14) 이거룡 외 (1999). 몸 또는 욕망의 사다리. 서울: 한길사, p. 217.
- 15) Arline and John Liggett (1989). *The tyranny of beauty*. London: Victor Gollancz LTD, p. 36.
- 16) Whitney Chadwick. 장희숙 역 (1993). 여권신장파. 서울: 열화당, p. 33.
- 17) Thalia Gouma-Peterson, Patricia Mathews. 이수경 역 (1994). 페미니즘 미술의 이해. 서울: 시각과 언어, p. 52.
- 18) 스트리킹(streaking)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고 달리는 것.
- 19) 플래싱(flashing)은 남들 앞에서 갑자기 성기를 드러내는 것.
- 20) 무닝(mooning)은 남들 앞에서 갑자기 엉덩이를 드러내는 것.
- 21) J.C. Flugel (1967). *Psychology*. N.Y. : International Univ. Press, p. 107.
- 22) Michel Foucault (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Penguin, pp. 135-69.
- 23) Jennifer Craik. 앞의 책, p. 217.
- 24) 김소영 (2001).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이상적 신체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5.
- 25) Nicholas Mirzoeff. 이윤희, 이필 역 (1999). 바디스케이프. 서울: 시각과 언어, p. 56.
- 26) Fred Davis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88.
- 27) Marilyn Yalom. 앞의 책, p. 231.
- 28) Waltraud Posch. 조원규 역 (1999). 몸 숭배와 광고. 서울: 여성신문사, p. 35.